통일화보

4호 주체110(2021)년 7-8월

◎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

◎ 제7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용약 탄원한 미더운 애국청년들

◎ 남녘겨레의 분노에 찬 웨침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도착한 전쟁로병들

통일화보

4호 주체110(2021)년 (7－8월)

절세의 위인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 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9

제7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10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3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14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15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7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청년절경축행사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한 청년들을 만나주시였다 19

조국의 현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 만천하에 과시 20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용약 탄원한 미더운 애국청년들 22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생활용품들을 더 많이 24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26

재자원화를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27

《단상》표 체육복들을 명제품, 명상품으로 28

긴재골에 염소떼 흐른다 30

합숙생처녀들의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 32

복받은 형제 34

천연향료연구에 심혈을 바쳐가는 과학자부녀 36

우표수집가가정의 긍지 38

인기를 끄는 특색있는 놋제품들 44

해외동포소식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삶 40

10

22

24

34

남녘겨레의 분노에 찬 웨침 42

독도는 소중한 우리의 땅 43

경의를 드린다

노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중에서

경의를 드린다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영웅조선 빛내가리라
당중앙 따라 대를 이어
그 전통은 영원하리
수령님 따라 승리떨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김일성**주석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새로운 작전임무를 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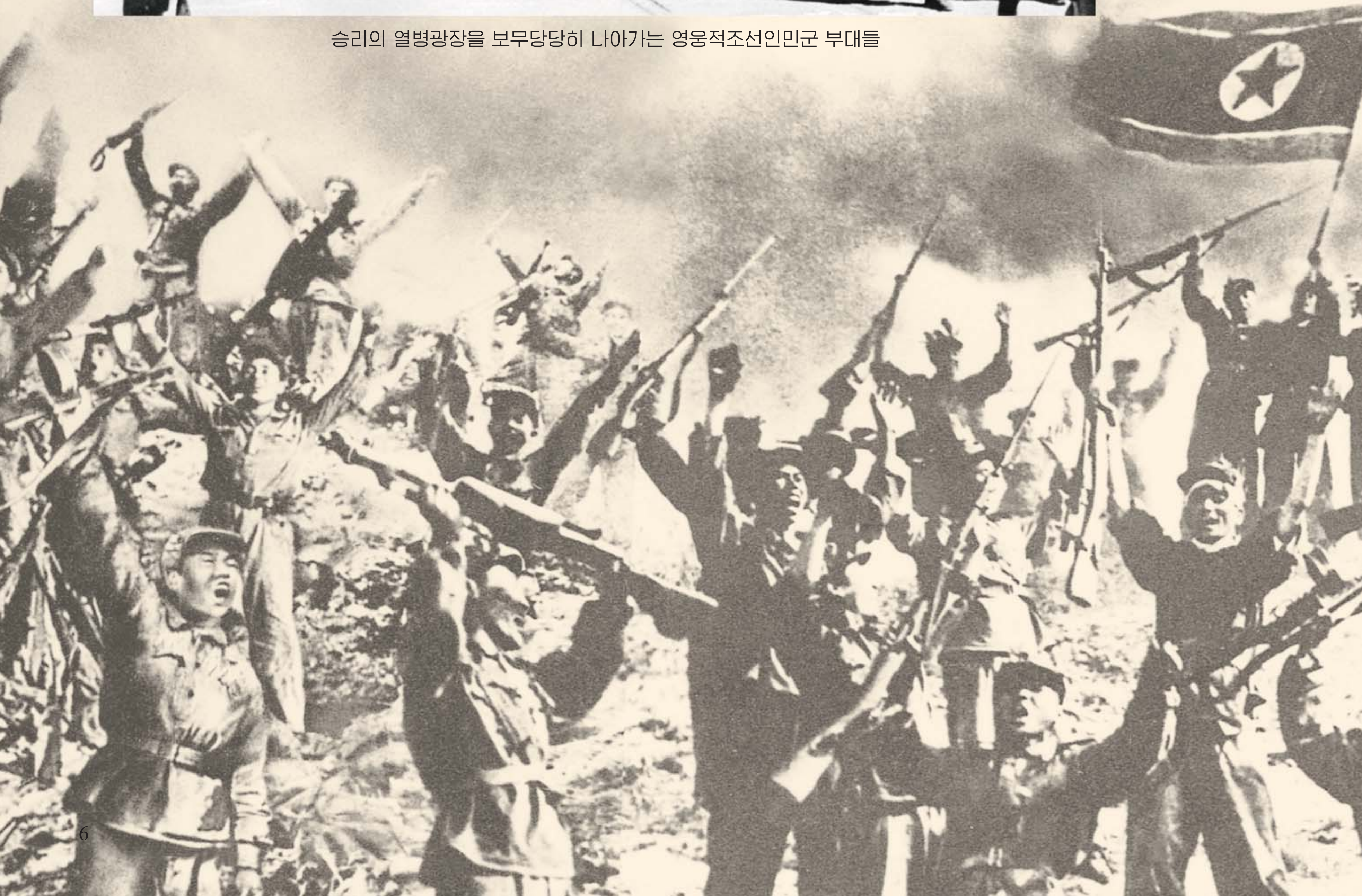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갱도작업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정전협정문건에 비준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승리의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 부대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전승 7.27 만세!

제7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전화의 용사들이 아까운 생과 바꾼 이 땅, 로병동지들이 한생토록 애국의 성실한 자욱을 새겨온 이 강토를 반드시 전체 인민이 부럼없는 복락을 향유하는 부흥강국으로 꾸려나갈것입니다.

김 정 은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1950–1953

50–1953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청년절경축행사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한 청년들을 만나주시였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 만천하에 과시

축 하 문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을 위한 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훌륭한 남녀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적극 탄원진출하여 전체 인민들의 신심과 투지를 더욱 북돋아주고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선청년의 혁명성과 전투적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하고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억센 신념을 지니고 난관도 희생도 두려움없이 혁명을 위해 용감히 싸울것을 궐기해나선 동무들의 애국적인 장거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딸들, 제자들의 장한 결심을 지지해주고 기꺼이 떠밀어준 훌륭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이 애국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이끌어주고 밑불이 되여준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피더운 심장과 용솟는 열정으로 조선청년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청년절을 맞이한 전국의 청년들에게도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서자란 고향과 가슴속에 키워온 희망은 서로 다르지만 당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꿈과 리상을 안고 누구나 선뜻 가기 저어하는 일터와 생소한 고장들에 인생의 닻을 내린 동무들은 사회주의조선의 크나큰 자랑이고 힘이며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애국자들입니다.

동무들의 소행은 사회주의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려는 투철한 신념, 우리 국가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당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 삶의 영예와 보람을 찾는 아름다운 인생관의 발현입니다.

당 제8차대회이후 시대와 조국의 부름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하는 청년들의 탄원열기가 비상히 격양되여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한 청년들의 대오가 급격히 장성한 사실은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세계의 곳곳에서 청년들이 탐욕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수도에로, 도시에로 찾아들 때 수도시민증을 파견장으로 바꾸어 탄전으로, 협동벌로 달려나가고 도시를 떠나 대건설장으로, 섬마을로 주저없이 진출하는 청년들은 오직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자라난 조선청년들뿐입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의 아름답고 훌륭한 정신세계에서 세대가 아무리 바뀌여도 변색을 모르고 맥맥히 살아숨쉬는 애국의 넋과 혁명정신을 읽고 있습니다.

정든 집과 불밝은 도시, 사랑하는 부모형제들과 떨어져 남다른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초소들에 자원진출한 동무들의 고결한 정신이야말로 혈육들을 뒤에 두고 설한풍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풍찬로숙하며 피흘려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의 빛나는 계승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을 개척한 항일선렬들의 붉은 피는 새세대들의 심장에 그대로 흐르고있으며 이것은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이 꿋꿋이 이어지고있다는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지금 원쑤들은 이 도도한 흐름과 기상에 전률하고있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제재압박과 끈질긴 사상문화적침투책동으로 우리의 청년대오를 변질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는 이 용용한 대하앞에 물거품이 되고말았습니다.

우리의 새세대들을 혁명의 편에서 떼여내여 사회주의보루를 무너뜨리려는것은 백년이 가도 이룰수 없는 헛된 망상입니다.

심장의 피가 펄펄 끓는 동무들의 혁명적진출로 하여 총진군대오의 사기는 날로 충천해지고있으며 온 나라에 필승의 신심과 청춘의 활력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고조기는 항상 청년들의 거세찬 탄원열기로부터 시작되였고 이 탄원폭풍은 언제나 온 나라에 혁명열풍, 애국열풍을 불러 격동적인 시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청년들을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어 험준한 산발과 파도세찬 날바다우에 청춘의 배낭을 풀어놓고 고귀한 구슬땀을 바친 청년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열의에 떠받들려 황량하던 페허우에 시대의 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고 이 땅우에는 전설적인 천리마시대, 로동당시대의 대번영기가 펼쳐졌습니다.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 조국이 또 한단계의 도약을 요구할 때 당과 혁명이 부르는 제일선에 용약 달려나가 불멸의 위훈으로 강산을 뒤흔들던 기적의 청년신화는 결코 추억속에 있는 과거가 아니며 오늘도 우리 혁명이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전세대들이 창조한 혁명정신, 투쟁기풍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청년대군을 가진 국가는 영원히 로쇠를 모르고 혈기왕성한 젊음으로 비약하며 전진합니다.

94년전 바로 오늘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열혈의 청년혁명가들이 그려보았던 공산주의사회는 먼 래일의것이 아니며 바로 로동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애국청년들의 굴함없는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현실로 펼쳐질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국이래 가장 준엄한 국면에 처해있으며 전대미문의 난관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돌파해나가고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선들에 집단적으로, 앞을 다투어 탄원진출한것은 몇십, 몇백만t의 강철과 비료가 쏟아져나오고 몇만대의 기계가 생산된것보다 더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보다 기쁜것은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애국으로 뭉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일원답게 어머니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 훌륭한 결심을 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는것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한것입니다.

애국열에 끓는 청춘의 심장들이 불씨가 되여 수백만 심장에 불을 지피고 이 불길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나약하고 흐리터분한 잔재들을 산산이 태워버리면 조선혁명의 승리의 시간표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됩니다.

당에서는 동무들이 지금의 앙양된 애국열의와 투쟁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전진하는 대오의 맨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되고 선봉투사가 될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동무들이 헤쳐가야 할 길에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을것입니다.

힘들것을 다 각오하고 시작한 길이겠지만 잠시나마 곤난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면 탄원의 그날에 다진 맹세를 되새겨보고 전세대들의 정신세계에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동무들모두가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들에서 투쟁과 위훈의 활무대를 펼치고 청년돌격대, 청년결사대의 위용을 떨치며 이 땅의 외진마을들까지 다 공산주의화해나갈 때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는 더 굳게 다져지게 될것입니다.

나는 애젊은 나이에 당과 국가의 걱정과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자원진출하여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모든 청년들이 일터의 보배, 위훈의 주인공으로 집단과 동지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영웅청년으로 이름떨치리라고 믿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고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고생을 달게 여기며 청춘시절을 바친 보람찬 자욱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인생의 재부가 되고 후대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으로 될것입니다.

최근 청년동맹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동맹내부사업,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전환을 일으키고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과 정신상태도 눈에 뜨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은 이번에 쌓은 경험에 토대하여 긍정이 긍정을 낳는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키며 청년들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우리의 청년대오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는 견실한 애국자들의 집단으로, 당의 믿음직한 별동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 태여나 자라난 청년이라면 한사람도 남김없이 모두다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 가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어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 단위에 진출한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며 당을 받드는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식들을 떠나보낸 가정들을 애국자가정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청년대군은 우리 당에 있어서 어느때나 의지하게 되는 하나의 든든한 지지점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강력한 력량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하고 미더운 청년들의 열렬한 충성심과 전체 인민의 두터운 지지와 신뢰에 떠받들려 우리 당의 위업은 승승장구할것입니다.

간곡한 당부로서 동무들이 생소한 고장, 새 일터에서 앓지 말고 건강하여 부모형제와 스승, 조직과 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새로운 혁신과 끊임없는 위훈창조로 아름다운 삶을 빛내여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모두다 우리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나는 동무들이 어머니당의 참된 아들딸답게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리라 굳게 믿습니다.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김 정 은

주체110(2021)년 8월 28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청년절을 맞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전달모임이 진행되였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청년절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용약 탄원한 미더운 애국청년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을 위한 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수많은 남녀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들에 적극 탄원진출하여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1만여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협동벌과 탄광, 광산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하고 보람찬 투쟁속에서 청춘시절의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는 청년대군의 믿음직한 모습은 최악의 역경을 박차고 새 승리를 향해 노도쳐가는 총진군대오에 무한한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생활용품들을 더 많이

- 류경생활용품공장 -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과정에 절실히 필요되는 각종 생활용품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류경생활용품공장은 평양의 통일거리에 자리잡고있다.

공장의 규모는 비록 크지 않아도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게 생산현장의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으며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되여있다.

2012년 4월에 조업한 공장에서는 위생종이, 애기기저귀, 애기용소독물종이를 비롯한 질좋은 위생용품, 생활용품들을 수많이 생산하여 평양산원과 수도의 봉사망들에 보내주고 있는데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해부터 공장에서는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파상황에 대처하여 마스크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의료용마스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일부

생산공정들의 자동화가 실현된 애기기저귀생산현장

위생안전성담보의 원칙에서 제품검사를 엄격히 진행하고있는 분석공들

현대적으로 꾸려진 애기용소독물종이 생산흐름선

위생종이 생산흐름선

공장에 새로 들어앉은 마스크생산공정

자동유압사출기에서 원주필대를 생산하고있는 기대공들

원주필알집가공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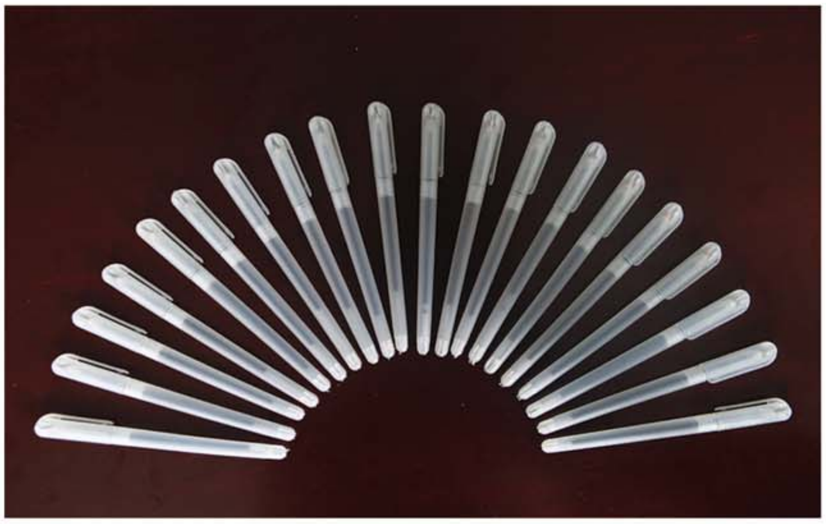
- 평양영예군인원주필공장 -

최근 평양영예군인원주필공장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원주필촉가공기와 자동유압사출기 등 오래된 설비들을 새롭게 개조하면서 기대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하루빨리 질좋은 원주필들을 더 좋게, 더 많이 만들어 근로자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주려는 이곳 종업원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해 제품의 질과 량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사진 최제건, 글 장윤정

원주필심관을 사출하고있는 기대공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

⇨ 원주필알집의 상태를 검사하고있다.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종업원들

공장에서는 물고기운반상자들을 생산하여 수산사업소들에 보내주고있다.

재자원화를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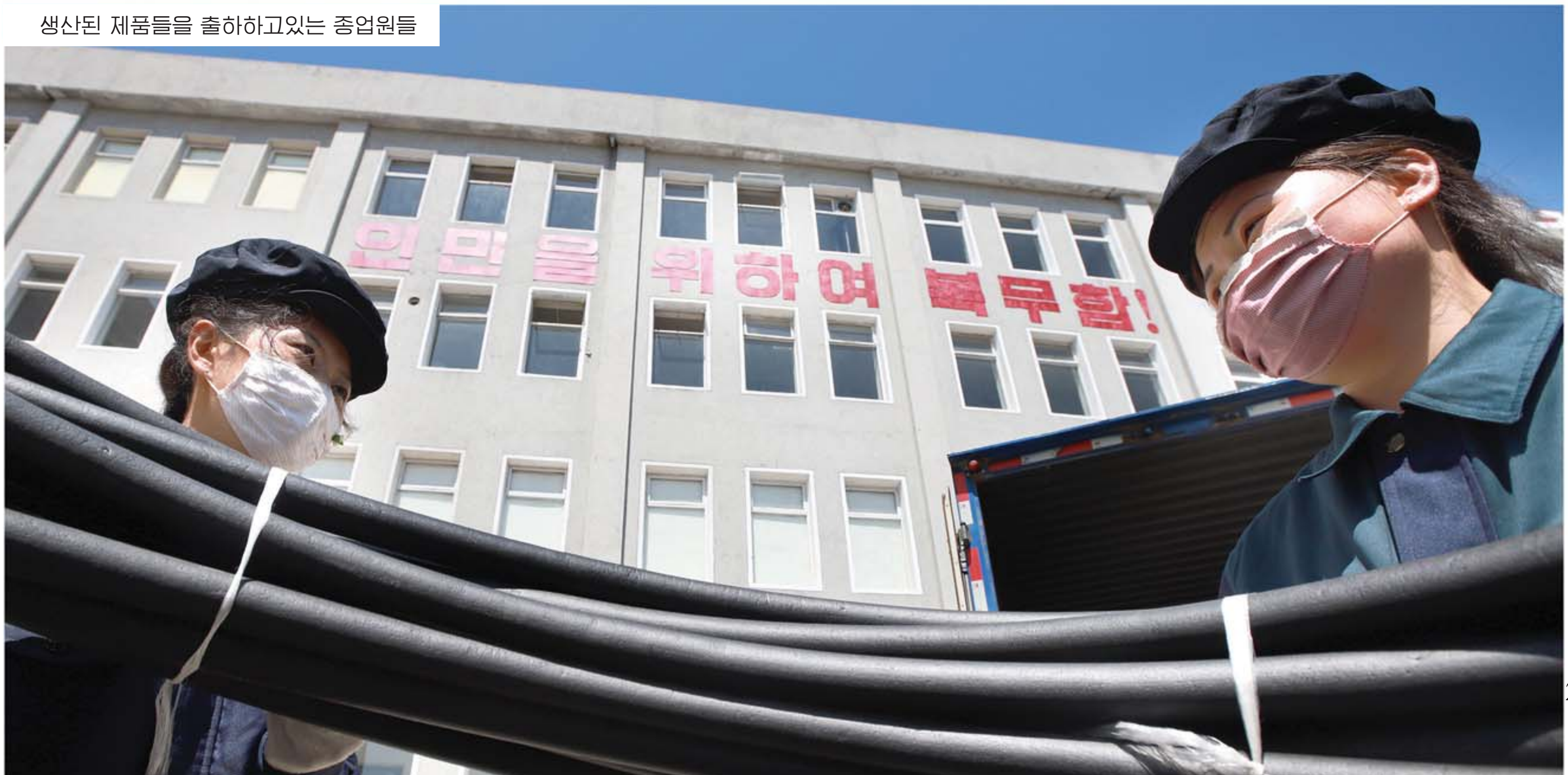
-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파수지회수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제품의 질보장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각종 수지제품생산량을 늘여나가고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파수지의 세척, 분쇄, 혼합공정을 로력절약형으로 보강, 완비하고 색배합압출기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등 성과를 확대하며 증산돌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송 영

생산된 제품들을 출하하고있는 종업원들



《단상》표 체육복들을 명제품, 명상품으로

- 만경대체육복장제작소 -

얼마전 기자는 종합적인 체육복생산기지인 만경대체육복장제작소를 찾아서 문성호책임기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만경대체육복장제작소에서 어떤 운동복들을 제작하는가.

책임기사: 우리 제작소는 국제경기에 나가는 국가종합팀 선수들의 종목별에 따르는 경기복과 훈련복, 단체복들을 만들어 보장하여줄뿐아니라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의 체형과 취미에 맞는 운동복들도 주문제작해주고있다.

기자: 제작소에서 만든 체육복장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책임기사: 지금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속에서 우리가 만든 《단상》표 체육복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

우리는 콤퓨터옷설계프로그람에 의한 설계와 인체착용모의를 통한 재수정을 진행하여 사람들의 체형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의 체육복들을 현대미가 살아나게 제작하여주고있다. 특히 단체복인 경우에는 명칭과 마크를 새겨주기도 하고 수축성과 보온 및 열전도성이 보장된 체육복들을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주니 모두들 좋아한다.

기자: 앞으로의 전망은…

책임기사: 앞으로 우리는 《단상》표 체육복들을 더 멋지게, 더 훌륭히 제작하여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만들겠다.

단체복도안의 일부

종목별에 따르는 경기복도안들을 창작하고있는 도안가들

체육복제작의 첫 공정을 담당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재단공들

최근 제작소에서는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공화국기를 형상한 운동복들을 대량 생산하고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단상》표 체육복들은 체육인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긴재골에 염소떼 흐른다

- 평안북도 곽산군 염소목장 -

1

2

3

1 목장에서는 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사육을 위주로 하고있다.

2 목장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염소의 마리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3 방목의 쉴참에

4 방목공들은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깊이있게 터득하기 위하여 짬시간마다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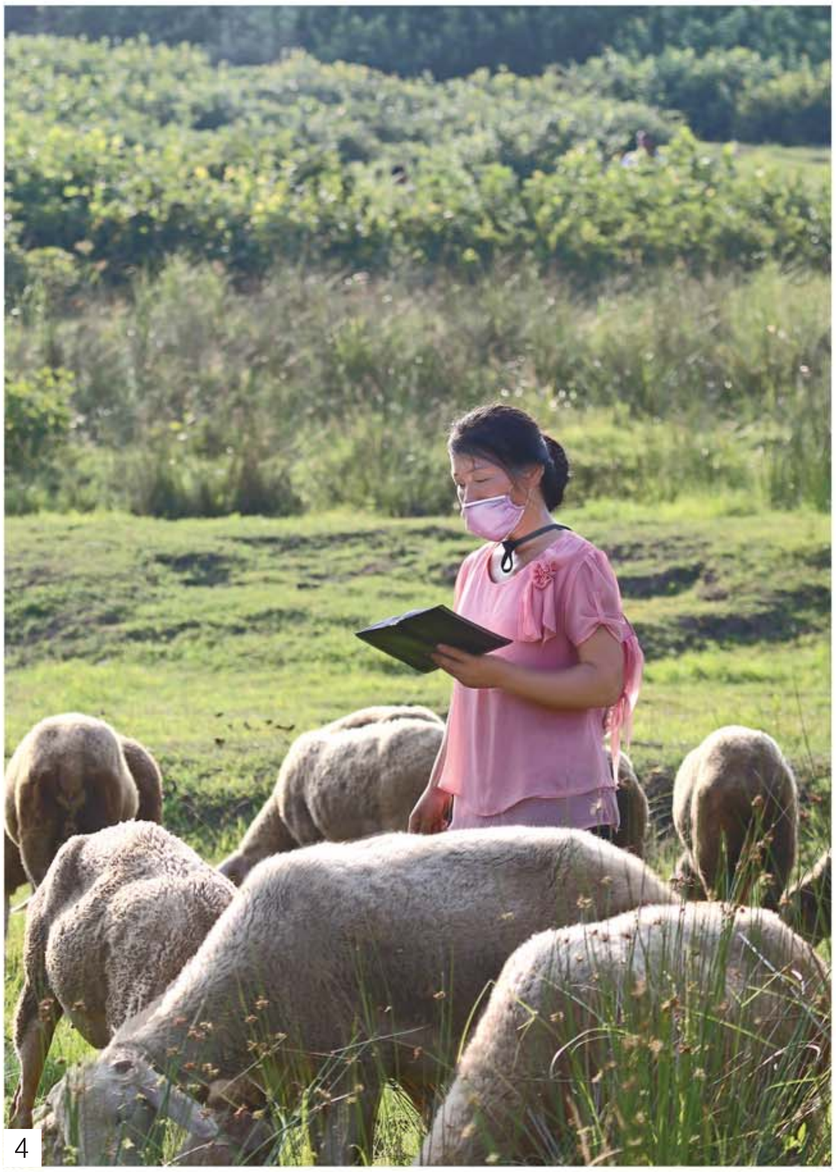
평안북도 곽산군 염소목장은 그리 큰 목장도, 전국에 소문난 목장도 아니다. 그러나 이 목장에서는 매일 많은 량의 염소신젖을 생산하여 군내 탁아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정상공급하고있어 군안의 인민들로부터 《실지 덕을 보는 목장》이라는 호평을 받고있다.

목장에서는 긴재골을 중심으로 사방 수십여곳에 풀판들을 조성하여 먹이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염소의 마리수를 계속 늘이였다.

또한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분산사육을 위주로 하면서 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지금 이곳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가까운 앞날에 신젖뿐아니라 여러가지 염소젖가공품들을 대량 생산하여 군내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룩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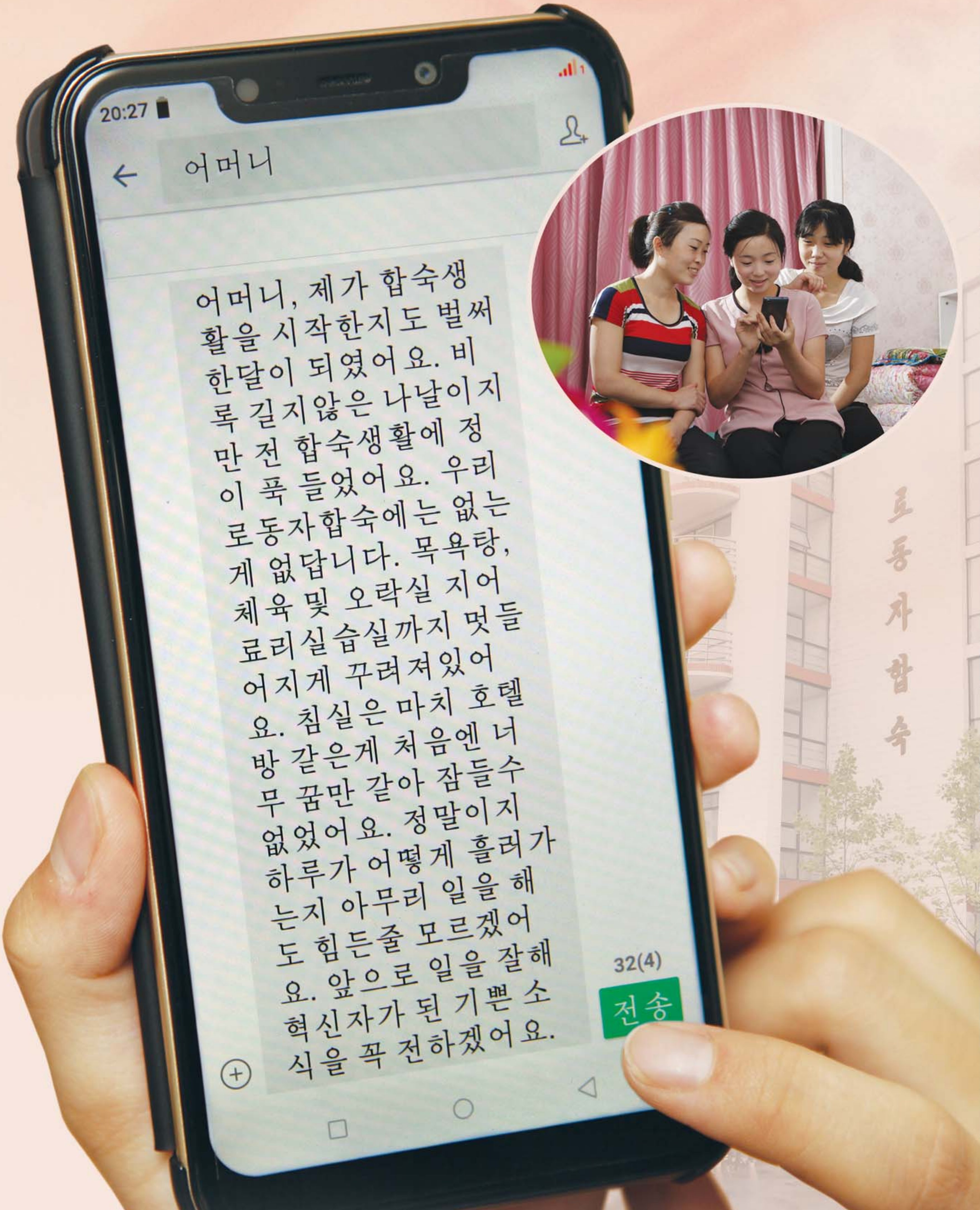
사진 박주성, 글 김화명



4

합숙생처녀들의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

-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전거리살림집에 입사한 박승일, 장순녀가정을 방문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9월

복받은 형제

- 중구역 만수동 1인민반 3층 2호에서 사는 장순녀녀성의 아들들인 박원, 박훈 -

주체101(2012)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대적으로 일떠선 창전거리살림집에 입사한 평범한 로동자가정을 찾으시여 나어린 자식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을 사람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완성한 박훈의 그림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맏아들 박원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라고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둘째아들 박훈이가 그린 그림을 보시고서는 그림을 완성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그림을 꼭 완성하라고 사랑의 당부를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

잊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박원이는 희망대로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하여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일념을 안고 학습과 훈련에 열중하고있으며 그림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습도 잘하여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닌 박훈이는 오늘 평양미술대학에서 앞날의 미술가로 자라나고있다.

참으로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들도 위대한 어버이의 따사로운 축복속에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고마운 어머니의 품, 진정한 삶의 품이다.

사진 리춘송, 글 장윤정

절세위인의 크나큰 축복을 받아안던 영광의 그날을 가슴뜨겁게 새겨보는 장순녀녀성과 그의 아들들

조선체육대학에서 축구기술을 련마해가는 맏아들 박원(오른쪽으로부터 첫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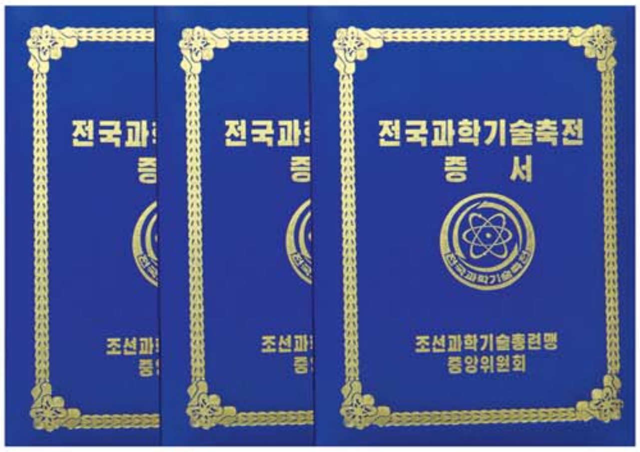
평양미술대학에 입학하여 꿈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둘째 아들 박훈(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

천연향료연구에 심혈을 바쳐가는 과학자부녀

— 평양향료공장 향료연구소 최등광소장과 그의 딸 최영순실장 —

30대박사가 된 딸과 함께

국내에서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있는 청송향제품들



최등광선생과 최영순실장이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받은 증서들

우리 식의 천연향료를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 있는 평양향료공장 향료연구소 최등광소장과 그의 딸 최영순실장을 가리켜 사람들은 청송향부녀, 박사부녀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올해 70고령인 최등광선생은 30대의 젊은 시절부터 오늘까지 근 40년간을 천연향료 연구사업에 바쳐오고있다.

일본에서 살다가 9살때 공화국의 품에 안기여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를 졸업한 그는 평양천연향료연구소(당시)에서 우리 식의 천연향료를 연구개발할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에 열중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소나무를 주원료로 하는 천연향료인 청송향과 송침유를 비롯하여 국내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리 식의 질좋은 천연향료제품들을 연구개발하였으며 수십여건의 국가발명과 창의고안들도 내놓았다.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아버지를 더없는 긍지로 여기며 성장한 딸 최영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를 졸업하고 이곳 연구소에 배치되여 30대에 박사가 되였으며 현재 향료연구소 향수 및 나노재료연구실 실장으로 사업하고있다.

그들은 오늘도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향료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사진 최제건, 글 한진아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 나가 치약생산에 리용하는 천연향료들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최등광소장과 최영순실장

청송향을 리용한 향수제품들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최영순실장

모란봉에 올라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최등광선생과 그의 가족들

우표수집가가정의 긍지

-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교원 리광선가정 -

공화국의 많은 우표수집가들중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교원 리광선선생과 그의 자식들도 있다.

아버지와 딸, 아들이 모두 우표수집가가 된데는 동기가 있다.

수십년전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고향의 부모형제들은 물론 친척, 친우들과의 서신거래를 자주 가지였던 리광선선생은 졸업무렵에 와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편지들이 트렁크에 차고넘치자 우표들만이라도 간수하기로 작정하고 학습장에 한장한장 붙여나갔다. 우표들을 다 붙이고난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한권의 학습장을 다 채운 우표들에 발전하는 조국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력사와 지리, 풍속 등이 다 담겨져있었던것이다.

그때부터 우표가 단순한 우편료금지불증서가 아님을 새삼스레 느낀 그는 우표수집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졸업후 대학교원이 된 그는 수집한 우표들로 우표첩을 만들어 대학생들에게 조국애와 민족애를 심어주는데 적극 리용하였다.

조선우표애호가동맹 회원이며 로씨야민족우표아까데미야 명예회원이기도 한 그는 자식들과 함께 지금까지 4 000여종의 우표를 수집해놓았다. 그들이 수집한 우표들은 조선우표수집전시회에서뿐아니라 2006년 6월과 2007년 6월 중국의 천진시에서 열린 국제문화교류축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조선우표전람회에 참가하였던 이들은 우표수집가가정이라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오늘도 우표수집을 이어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리광선가정에서 수집한 우표들의 일부

2007년 중국에서 열린 국제문화교류축전에 참가한 리광선교원

ДИПЛОМ DIPLOM
участник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илателист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и
국제우표수집전시회 참가자 증서
·Rossica·
вручен в Пхеньяне
평양에서
리광선에게 — Ли Кван Сену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Председателя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Академии
아까데미아 후견리사회 위원장의 감사의 표시로 수여한다
Сергея Ткаченко
쎄르게이 뜨까첸꼬에게

2015년 리광선교원이 국제우표수집전시회에서 받은 상장

1 리광선가정에서는 지금껏 수천점에 달하는 우표들을 수집하였다.

2 우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심어주고있는 리광선교원

3 우표수집을 위해 조선우표박물관을 찾은 리광선교원의 딸 리은정과 아들 리진혁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삶

- 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로재호선생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결성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한 로재호선생, 그는 한생 신들메를 풀지 않고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총련의 원로, 참다운 애국충신이였다.

1911년 11월 경상남도 창녕군의 빈농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세월 태를 묻은 정든 고향을 눈물로 하직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이역의 고역장에서 갖은 멸시와 학대를 당하는 조선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두주먹을 부르쥐고 싸웠다.

조국이 해방된 후 가나가와현에서 선참으로 애국운동의 봉화를 추켜든 그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재일동포들을 조국수호성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총련을 결성하는 사업에도 앞장섰다.

총련결성이후 그는 귀국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조선신보사 사장, 재일본조선인교육회 회장 등의 중책을 지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중요한 고비마다 가장 어렵고 긴요한 사업들을 맡아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러던 그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조의행사와 관련한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애국의 삶을 빛내인 그를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사진 장창욱, 글 한진아

조국해방의 기쁨안고 애국운동의 첫 발자욱을 떼던 시기의 로재호선생(왼쪽으로부터 두번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으로 사업하던 나날에

조국에서 살고있는 가족들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로재호선생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은 로재호선생의 자손들

남녘겨레의 분노에 찬 외침

남조선에서 외세와 야합하여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평화수호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지난 8.15를 계기로 민주로총과 《한국진보련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수호통성단 등이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평화이음, 국민주권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8.15기념성명과 론평을 통해 외세의존과 합동군사연습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절대로 이룰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남녘땅을 뒤흔들며 세차게 벌어지는 각계층의 반미반전투쟁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강렬한 지향이며 요구이다.

글 본사기자

독도는 소중한 우리의 땅

독도는 우리 선조들의 넋과 피와 땀이 스민 소중한 우리의 땅,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신성한 우리 조국의 령토이다.

독도가 력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민족고유의 령토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 일본의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오늘까지도 《독도령유권》을 한사코 주장하면서 졸렬하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도꾜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한 홈페지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데 이어 도꾜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를 소개하는 TV영상을 방영하면서 시마네현청에 있는 《다께시마자료실》이라는 간판을 의도적으로 로출시키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그리고는 이에 대한 내외의 강한 비난과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관방장관을 비롯한 정부고위관계자들을 내세워 《<다께시마>는 일본고유의 령토》, 《랭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전적으로 나왔다. 이것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왜나라족속들의 흉계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조선반도재침책동이 갈수록 로골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지금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재침야망에 들떠 령토강탈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열기는 분노의 활화산되여 더욱 거세게 타오를것이다.

글 본사기자

인기를 끄는 특색있는 놋제품들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에서 생산한 신선로와 국수그릇, 밥그릇과 국그릇을 비롯한 집기류들은 무게가 가볍고 그 모양이 우아하며 건강에도 좋은것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국내최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이 놋제품들은 국제박람회들에도 출품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인민들이 선호하는 특색있는 놋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제품의 질적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그 가지수도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한진아

력사유적

개심사

개심사는 함경북도 명천군 보촌리 칠보산 개심대에 있는 절이다.

개심사를 처음 지은 년대는 발해때인 826년이며 1784년에 고쳐세우고 여러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다.

개심사는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심검당, 음향각, 관음전, 산신각 등 다섯채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대웅전은 정면 3간, 측면 2간의 합각집으로서 기둥은 배부른기둥이며 두공은 제공 한단을 더 놓고 바깥 5포, 안 7포의 포식두공으로 화려하게 짜올리였다. 모루단청을 입혀 화려하게 꾸민 대웅전에는 내부에 소란반자를 댔으며 불상이 있다.

심검당은 정면 6간, 측면 3간의 큰 규모의 건물이다. 심검당정면의 기둥은 배부른기둥이고 뒤면은 네모기둥이다. 기둥우에는 구조적으로 탐탁하고 부드러운감을 주는 2익공두공을 올렸다.

관음전, 산신각은 네모지붕이고 음향각은 우진각지붕으로서 독특한 형식을 갖추고있다.

민족의 귀중한 문화적재보인 개심사는 공화국의 력사유적보존정책에 의하여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다.

글 송 영

해칠보의 아침

칠보산은 함경북도 명천군과 화대군, 명간군, 어랑군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조선의 6대명산중의 하나입니다.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여난 풍치로 하여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알려졌으며 산이름도 진귀한 일곱가지의 보물에 비기여 칠보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독특한 산악미와 계곡미, 바다경치를 계절에 따라 펼쳐보이는 명승지 칠보산은 지역별특성과 탐승로정에 따라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지역으로 나뉘여있습니다.

ISSN2305 8544

구월산의 구름바다